핸드북 09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임마누엘 교회

목차

01. 서론과 전개 (p-1)

02. 전도의 내용 (p-5)
03. 다락방 전도 전략 (p-9)
04. 개인 전도 (p-12)
05. 관계 중심 전도 (p-16)
06. 양육(1) (p-19)
07. 양육(2) (p-21)
08.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p-24)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1강 : 서론과 전개

1.전도인의 생활환경

▶개교회에서 전도훈련, 제자훈련의 열매를 맺기란 무척 힘들다.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이 교회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C.C.C의 경우, 동일한 청년대학 문화권에서는 가능할는지 모르나 교회 내에서의 다양함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네비게이토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율법적 요소가 많아서 교회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

▶제자훈련에서 기초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기초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다. 먼저 전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전도에 있어서 전도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실한 발판(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발판

(1)첫째,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2)둘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한다(엡1:10).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되어가고, 우리는 이것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3)셋째,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요14:16, 26, 요일 2:20, 27).

(4)넷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딤후3:16-17).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 한다. 성경의 권위를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리려는 그 간교한 술책에 얼마나 많은 목사, 신학자들이 넘어가는가? 이것은 정말 중

요한 사실중의 하나이다.

(5)다섯째, 신자의 가치이다. 교회를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의 지배적 인 주권적 역사를 신자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6)여섯째, 성령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직장, 캠퍼스, 이웃 등)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7)일곱째,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8)여덟째,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히 9:27) 이것을 믿어야 한다.

(9)아홉째, 엄청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죽는 것은 순간이다. 갑작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천국과 지옥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대부분이 망각하고 있다. 이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10)열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신다.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이상의 열 가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면 성공한다.

2.하나님의 목적

(1)첫째,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역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2)둘째, 내가 소속된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속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열매, 성장, 전도의 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는 곳이므로 그만 두든지 사표를 던져야 한다.

(3)셋째,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교회, 집단, 가정, 개인은 자중지란에 빠지게 된다.

3.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

(1)동기

▶왜 복음을 전하는가? “왜”라는 질문은 전도자가 수시로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이다. 교회의 과시, 기관의 단합이 목적이라면 이내 수정해야 한다. 총력전도, 총동원주일 등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동기가 될 수 없다. 전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생명 운동“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의 동기이다.

(2)방법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된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숨겨진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이

다(행13:48). 차근차근 살펴보면, 분명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 성령이 그 마음을 찔러주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일이 어렵게 된다. 전도는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다. 생명의 비밀, 예수의 생명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의 전도는 놀라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하다. 확신을 얻기 위해,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

(3)사후관리

▶전도 후 생각해 볼 것은 전도이후의 양육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확실히 이야기하

겠지만 양육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새신자는 비틀거리게 된다. 현교회가 여전히 새신자를 교역자만의 손을 통해 양육 받게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개척교회에 불과하다. 새신자를 데려오면 속히 주를 영접하고 시인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게 해 주는 평신도가 많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많다.

4.전도인의 삶

(1)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어야 한다. 성경은 사40:8, 마5:16-17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언하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 말씀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한사람만 있으면 현교회는 소망이 있다.

(2)둘째, 일하는 자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목사와 장로가 교인들을 위해 종의 모습을 취하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한다. “Serve by leading”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끌고 가면 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게로 인도하는 종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게 된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누구나 좋아한다. 도둑도 정직하고 겸손한 부하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야 오죽하랴.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는 높아지려고만 한다. 여기에서 교회의 문제는 발생한다. 훈련받은 자는 누구보다 겸손해져야 한다. 부장은 교사의 종으로, 장로는 교인들의 종으로 그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3)셋째,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마19:29) 올바로 해석하면 “가치의 재인식”, “가치순서의 재정립”이 필요

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주님의 편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과감히 버리는 자여야 한다.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세상에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전도자로 나서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철강회사에 들어갔다. 그는 과감히 의사직을 버리고 근로자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근로자들에게 전도했다. 어느날 사고로 한 사람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 그 의사가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 응급조치가 그를 살리게 되었다. 회사 사장은 이를 안 뒤에 회사병원을 그에게 맡겨 결국 마음놓고 전도하게 되었다. 버릴 때 하나님은 더 채우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4)넷째, 파송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

다.(마10:40, 요20:21) 우리의 주업이 바뀌었는가 확인해 보라. 보일러공? 설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업에 불과하다.(바울의 삶을 보라) 전도를 위해 그는 부업을 가졌다. 우리 또한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혼신의 정열, 목숨을 거는 전도의 폭발이 일어난다.

5.전도전략의 기본원리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듯이 전도의 기초에 있어 진정 그가 그리스도께 대한 언약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눅9:23) 이것이 없는 자는 성격상 열심을 부리는 자에 불과하다. 그것보다 더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생명이다.(고전3:11)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해야 그에게 새생명이 있게 된다.

▶새생명 예수가 영접되면 그는 자라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성장하는 그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리더의 할 일은 각 새생명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율법에 얽매이거나 제도에 얽매이거나 방법에 얽매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게 하며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리가 갖추어지면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

▶전도대상자를 만났을 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1)복음을 받지 못한 자
(2)복음을 받았으나 확신이 없는 자.
(3)충성된 자.
(4)헌신하게 될 사람(사명자)

대체로 이 4가지 구분을 따라 전도와 양육이 각각 다르게 시행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려고 하는 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나의 내부에서부터 폭발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옆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The end)

2강 : 전도의 내용

▶운동을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존의 타성에 젖은 전도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붐 조성으로 혹은 유행 정도로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는 복음화가 될 수 없다(방법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1.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왜 전도가 안 되는가?

(1)첫째, 우리에게는 준비가 없다. 다시 말해 전도하려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도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메시지를 준비하지도 않는다. 평상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핸드백 속 혹

은, 호주머니 속에 전도를 대비하여 준비된 전도지나 소책자를 예비하여 다니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정작 전도해야 할 사람을 맞닥뜨려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2)둘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영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는 말이다.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값어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냥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셋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전도해야 할 명령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이유를 벗어버리고 순종해야 할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올바른 전도의 동기

▶왜 전도해야 할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전도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령 불복종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은 자이다. 그 만큼 하나님은 전도를 중요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다.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선행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

면 간접적으로는 이단에게 동조하는 꼴이 된다. 그들의 공격보다 먼저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만 한다. 시급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전도하는 길이다. 한번이라도 그들의 손에 사로잡히면 일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전도! 빠를수록 좋다.

3.전도의 내용

▶전도할 본문, 메시지는 가능하다면 간단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 간단하게 빨리,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전도의 내용 또한 간략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 개인 전 도시에 장문의 논문이 결코 필요치 않다. 핵심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여 선포하라.

아래에는 전 도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나열해 보겠다.

(1)인생의 문제

▶인간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해야 한다. 즉,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문제이다. 물론 이야기를 꺼내는 초두에 직접적으로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지적한다면 그는 매우 이질감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재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리의 상태가 죄요,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육적인 수준에서만 머문다. 그의 특성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물적 수준에서만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인생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 육적으로는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증거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가? 기아로, 질병으로 죽어 가는 오늘날의 숱한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 주는가?

▶또 정신적인 풍요를 인간이 과연 누리고 살고 있는가? 많은 정신적. 사상적 풍요를 누렸던 지혜자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왜 스스로 허무를 느끼고 자살을 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의 육적.정신적 현재는 한마디로 비참하다. 그들의 영혼이야말로 어찌 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다.

(2)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

▶곤경에 빠진 인간에 대한 주제 연구는 이미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미

있어 왔다. 참담한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인간들은 해왔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암담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도덕, 선행, 철학이라는 온갖 인간의 지혜를 짜냈었지만 인간이 만든 해결의 길은 유사이래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원인을 찾아보자.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 왔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졌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악의 실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사단이라는 사실이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닿으려고 인간들을 넘어뜨린 사단, 그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생명 없는 다른 것들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사단은 누구인가?

그는 본래 천사였다. 하나님의 뛰어난 피조물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선 순간 그는 타락하고 그의 타락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까지 타락시켰다. 그는 언뜻 보기에 완전히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간에게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사단이 그 큰 권세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 즉, 우리가 사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방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

길 원하셨다. 이 두 가지의 고민과 갈등(인간적 표현)을 다 충족시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에게 있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리셨다.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살아날 것을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할 복음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그의 궤계를 쫓아내는 유일한 이름이다. 이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이다.

(3)영접의 단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로 하여금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를 主라고 시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 그는 새롭게 태어난다(롬10:9-10).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그는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지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로 시인함으로 영접하게 한다.

▶교회에 데리고 오기 전에 만나서 주를 소개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인 그곳에서 영접하게 해야 한다. 영접치 않으면 결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4)간단한 양육

▶영접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시켜야 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사단의 표적이 된다. 주를 시인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집요하게 새생명을 괴롭힌다. 그래서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민거리를 만나게 된다.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도록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주어진 선물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성경의 확실한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그에게 성장을 위한 계속적인 읽을 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이에는 C.C.C.에서 나온 새생명 시리즈와 쉽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개념 등이 있다.)

▶새신자에게 계속적으로 양육하면서 영접한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

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면 신앙이 올바로 자란다. 성령에게 민감해야 만이 하나님이 그를 주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전도해야 할 내용이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에는 보조자료가 있다. 다락방전도훈련원의 <개인전도요령>과 <현장 복음 메시지>, C.C.C.의 <사영리>, 네비게이토의 <Bridge>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직접 대화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한 방법은 각자의 성격, 재능에 따라서 선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end)

3강 : 다락방 전도 전략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방법은 무엇인가?

1.다락방 운동

▶개교회가 전략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성도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

(1)다락방의 정의를 먼저 적어보자.

▶우리가 처해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활동을 펴기 위한 성경공부 활동을 말한다.

(2)다락방 운동의 중요 특성을 살펴보자.

1)첫째, 성경적이다. 행17:2에 우리의 규례(전략)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자신의 규례, 즉 자신의 전략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 했다. 이것은 어디서나 성경공부를 했다는 뜻이다.

2)둘째,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전 한국 성도들의 자신의 위치에서 다락방 성경운동을 벌인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3)셋째, 다락방 운동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파고드는 교회이다. 직장으로, 지역으로, 캠퍼스로 파송되어지는 교회이다. 엄청난 힘이 있다.

4)넷째, 전도가 아주 용이하다. 복음으로 초청하기도 쉽고 전도를 하기에 이것보다 쉬운 것이 사실상 없다.

5)다섯째, 다락방 성경공부는 초청할 근거가 있다. 분명한 이유, 성경을 공부하라고 초청하게 된다.

6)여섯째, 양육이 용이하다. 자연스럽게 전도와 양육이 연결된다.

7)일곱째,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8)여덟째, 이것은 바울사도의 전도 전략이었고 다른 제자들의 전도 전략이었다.

9)아홉째, 제자들은 이 방법을 직접 시행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10)열번째, 교회사 중에 로마의 초기 교회시절 박해받는 성도들의 모였던 카타콤이 있었다. 그곳은 바로 무덤이었다. 이곳에서 훈련과 성경공부, 제자화 운동이 300여 년간 계속되었고, 그것은 대제국 로마를 복음화 하게 된다. 주후 313년경 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하게 되고 기독교는 로마국교가 되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로마교회이다.

11)열한번째,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기독교의 타락이 이루어진 때가 중세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때 잃어버린 것이 평신도요, 세계복음화였다. 18C경 옥스퍼드 대학의 한쪽에서 일어난 웨슬레 성경공부 운동이 전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이 연결된 것이 웨일즈운동이다. 사장되어져 가던 평신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다.

12)열두번째, 미국의 경우이다. 무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청소년 100만 명을 훈련시켜 미국을 탄탄한 복음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13)열세번째, 이제 한국에서 이 놀라운 다락방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시작했고 성공한 교회가 몇 교회 있다.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하여 부산을 복음화하고 한국을 복음화 해야 한다. 전도를 하는데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이를 대적한다. 합리적이고도 가장 합법적인 방해 공작을 해 온다. 시험도 많다. 그러나 결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전도하는 자, 다락방운동을 벌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

복의 약속이 성경의 곳곳에 있다.

2.다락방 운동에 앞서

(1)기초(기반)를 먼저 다져야 한다.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 먼저 믿는 자들과 주님의 계획을 함께 볼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힘이 모아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된다. 먼저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많은 불신자들이 반대, 조롱 혹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 모임의 역할의 시작이다.

(2)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한 명씩 초청하기 시작해야 한다. 외로운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하면 다락방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

하는 계기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다.

(3)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1)첫째, 다락방운동의 Key는 성경공부이다.(예수생명, 예수능력) 구역예배의 형식에 너무 메이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항상 있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은 입에서 입으로 광고가 되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

2)둘째, 생명의 기쁨에 대한 나눔이다. 간증과 고백을 통한 나눔(sharing)은 모임에 활력을 더해 준다.

▶다락방 운동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먼저 모일 때는 친교중심으로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가지다가 간증, 좀 더 구체적인 초청집회 등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

3.리더의 자격

(1)리더의 자격은 두 가지뿐이다.

1)첫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시간을 낼 수 있는 자,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자이다.

2)둘째는, 목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희생적 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구속에 대한 체험과 개인 전도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며 계속 성장하려는 자이다.

(2)리더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1)첫째, 실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제풀에 실망할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면 큰 능력을 얻게 된다.

2)둘째,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제자를 만들거나 친교모임, 우월의식

등에 사로잡힐 수 있다.

▶아울러, 너무 많은 일에 시간을 빼앗겨 중요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리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화 시켜야 한다. 너무 분주할 경우 실패하게 된다. 무질서를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뒤에 뛰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다락방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 그러므로 시간 배정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The end)

4강 : 개인 전도

1.가장 기본적 단계

▶전도 전략은 다락방 운동이라고 앞에서 밝혔다. 다락방 운동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개인전도를 펼쳐 나가야 한다. 직접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전도할 뿐 아니라 다락방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다. 고전1:21 말씀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였다.

(1)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 영접하도록 도와준 그 영적 부모를 평생토록 잊지 못한다. 그 사람의 영혼에 문

제가 있는지, 정말 거듭난 새생명인지 확인해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 교역자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않고 아무리 능력을 얻으려고 해도, 봉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어려운 노동일 수밖에 없다. 새생명 예수를 그에게 영접시켜 주어야 한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아무리 강조해도, 제도에 묶어 두어도, 결코 그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 신앙생활은 기쁨 가운데서 봉사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머니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2)단12:3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일평생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2.전도의 실행

(1)첫째,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것은 불신에 가깝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만 뿌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다. 만민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 윗치만니는 60명을 놓고 전도하려고 기도했다. 그의 계속적인 기도로 그 중 59명이 구원을 받았다.)

(2)분명한 기도를 하면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이다. 부모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 등이 바로 기회일 수도 있다. 전도를 하기에 앞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 한다(마12:28-29). 마귀의 세력을 먼저 결박해서 그가 결코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3)기회가 보이면 특별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전도자가 자신의 무장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만 한다. 금식기도, 특별 작정기도가 필요하다. 바울 사도도 어려운 선교지를 만나면 금식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행13장).

(4)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롬10:10-15).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5)간증을 준비하라. 나의 간증이 때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된다. 간단하게 2-3분 정도 소개할 수 있는 자신의 간증을 준비하라.

(6)입으로 인정, 시인하게 해야 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인하면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 하신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 하게 된다.

▶접근하는 일과 영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접근하기에 앞서 확신해야 할 것은 그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이다. 전도의 일단계는 그가 문제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이 접근만 쉽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쉽게 된다. 만약, 그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를 다락방 성경공부에 초대해서 성경과 가까워지게 한다.

3.장애와 해결들

▶복음 전하다 보면 계속적인 질문, 비난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1)먼저 그의 비난이나 질문을 인정하여 잘 경청해야 한다.

(2)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결코 논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3)그에게 겸손과 진실로 대답해 주어라.

4.반대 질문 처리법

(1)어떤 이들 중에 “성경의 진리성”여부를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성경은 진리이며 “예언서”이다. 구약은 모두 성취되었다. 신약은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또 새

로운 예언이 되어 있다. 세상의 어떤 경전도 예언서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된 일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성취한다. 딤후3:16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 질문하는 자에게 성경의 예언적 역할에 대해 증거해 주면 된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볼트윈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50년이면 없어진다라고 오래 전에 얘기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언이 엉터리라고 판명되었고 그는 자살했다.

(2)“나는 너무 죄가 많다”라고 복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당신은 그들보다는 낫다라고 깨우쳐 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분은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사고에 박힌

사람은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법정을 생각해 보면 판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 검사는 죄인의 죄를 지적해서 판사에게 얘기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변론자이시다.

(3)“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 이것은 성격 탓이다.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롬10:9-10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믿고 싶은데 증거도 없고 체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체험을 하자면 먼저 곤경에 빠진다. 체험을 해야만 믿

겠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옳지 않다. 낮은 수준이 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요20:29-31).

(4)“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유가 많다. 직장, 일,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교회를 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약4:13 들으라 너희 중에…이를 보려는 자들아…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 생명은 잠시 보이는 안개와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고후6:2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눅12:19-20 어리석은 자여 영혼을 찾으리니…. 마16:26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

하다. 잠언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이러한 성경의 사실을 확실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5)“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은 착각이다. 막10:29-30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100배를 얻는다고 했다. 막8:36-37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요일2:15-17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하나님께 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너무 화려한 것에 유혹 받으면 안 된다. 너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비참한 인간이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6)“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

인이 표준이 아니다. 그러나 인정하라. 왜냐하면 나 자신도 문제가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히12:2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 빌3:12, 14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달려가는 중에 있다. 자꾸 변해간다.

(7)“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요삼1:2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에도 축복이 일어난다. 우찌무라 간조는 “3년 안에 예수 믿고 부자 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내부에 또 다른 문제인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가난한 사람을 부요케 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8)“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는 사람

▶마3:17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요8:32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성격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

(9)“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모든 종교가 선을 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 같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죄를 속량하시려고 죄를 대속하는 그곳에만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식견 있는 부처를 믿었던 중들이 말하기를 불교에는 깊이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발표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10)"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람

▶그것은 결코 나쁠 것이 없다. 고전12:20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믿는 자는 여러 가지이다.

(11)"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람

▶롬3:23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모두를 말한다.

(12)"다녀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교회 다닌 것이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질문해 보라.

(13)"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

▶제사가 어디서 나왔는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중국의 주공이라는 자에게서 나왔다. 그가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풍습으로 전해온 것이다. 귀신을 섬기며 제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그 근처뿐이다.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다.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간다. 다시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다.

▶고전10:20 제사 지내면 귀신이 모여든다. 그러므로 그 가계에는 축복이 임할 수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추도예배를 드린다.

(14)“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을 마음대로 산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 계21:8, 요14:1-4, 눅16:19에 명백하게 성경은 지옥을 증거하고 있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다.

(15)“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라는 사람

▶자신은 바른길이라고 걸어가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롬3:23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16)“광신적이라서”라고 말하는 사람

▶지나친 표현이지 그것이 표준이 아니다. 시47:1, 요8:47

(The end)

5강 : 관계 중심 전도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먼저 우리가 훈련되고 다듬어져 있으면 구원얻어야 될 사람을 붙여 주신다. 전도훈련은 먼저 우리가 다듬어지고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과 기능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윗을 들어 쓰신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이가 다윗

뿐이었고, 또한 그는 돌팔매질에 능했다. 그에게는 믿음과 기능이 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락방운동을 벌이면서 우리의 기능, 달란트를 써야 한다. 양육이 또 중요시 되어야 한다. 전도되어져 온 영혼을 잘 양유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결여되어 있는데 양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져야만 한다.

(1)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2)다락방운동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3)전도되어져 새로 태어난 영혼을 잘 양육한다.

▶'관계중심 전도'란 한마디로 나와 관계되는, 나를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는 친구,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1.가족 전도

(1)가족이다. 가족을 전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 확립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가족과 가장 밀접하고도 의미있는 관계, 즉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야 한다. 노모에게나 자녀에게 먼저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시기와 때가 온다.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족구원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이를 전도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늘 사랑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영접하기가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2)결혼은 전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다. 만약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구원은 힘들게 된다.

(3)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

나 있다. 이 크고 작은 문제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4)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 구원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다주기가 너무 쉽다. 오랜시간 동안 선을 해하다 보면 언젠가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5)종합하면 가족 구원의 열쇠는 무너진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다. 전도하기 위해 사랑을 행하는 것이 관계중심 전도의 요점이다.

(6)기도카드, 기도수첩을 꾸준히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도 조사서”라는 것이 있다.

1)조사할 것

①이름 ②주소 ③전화 ④관계

⑤가족 관계

▶위의 것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2)아울러 조사해서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①생일 ②기념일 ③직업, 직장생활 ④건강문제

⑤어려운 점 ⑥취미, 특기 ⑦모임, 비젼 ⑧자녀, 제사일 등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주로 가족이나 친지)의 구체적인 신상을 기록하고 있다가 생일카드를 보내든지, 전화나 편지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와 만나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쉽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에 따라 열매를 주신다.

2.축호 전도

(1)사도행전 13장은 전도에 있어서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는 우리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파발로 세우셨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분명 화가 임할 것이다.

1)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찾는 것이다.

2)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 문을 열어 놓은 자를 찾는 것이다.

3)심령이 갈급한 자를 찾는 것이다(행20:20)

(2)축호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1)어린아이들을 모아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 된다. 즉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부모들의 형편을 알아 볼 수 있다.

2)다락방을 시작해 놓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된다.

3)비록 전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교회 나오도록 잘 인도해야 한다.

4)교회 안내 책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도시에는 낙심자, 이주자가 많기 때문이다.

5)비디오, 슬라이드도 활용할 수 있다.

6)항상 읽을 것을 남겨 주고 와야 한다.

7)바쁜 시간은 피해야 한다.

3.노방 전도

▶성경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전도하라”(눅14:23)고 적혀 있다.

노방전도는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 양면성이 있다. 헤어지기 전에는 찬송과 예배를 하지만 흩어져서는 일대일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

야 한다.

(1)시선을 끌 수 있는 몸차림을 해야 한다 - 교회 띠를 두루고 나가야 한다.

(2)사람이 많은 곳, 조용한 곳으로 간다 - 많은 곳은 선전, 조용한 곳은 일대일 접촉 중심.

(3)합창단이 있으면 시선을 끌 수 있다.

(4)커피 담당이 있어야 한다.

4.주일학교, 구역활동과의 관계

(1)구역 활동

▶구역활동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구역원 끼리의 단합, 교제, 교회일의 의논 등을 위해 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역활동을 폐지하지 말고 다락방으로 해 나가야 한다.

▶다락방이 구역예배와 다른 점은?

1)한 장소, 시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락방 지역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한다.

(사무실, 유치원, 학원 등을 1주일 한 두 시간 빌리는 것이 좋다)

2)성경공부를 가르쳐야 한다.

3)계속하여 결과 및 간증문을 전해 준다.

4)발전하면 다락방 회보를 만들어 계속 광고한다.

5)처음에는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6)문제가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합심기도를 해서 섬긴다.

7)간증 모임을 자주 가진다.

8)계속 발전하면 선교관 형태를 발전시킨다(소교회 운동).

(2)기관 활동

▶기관활동의 장점은 결속을 위해 공헌을 할 수 있으나, 선교와 전도 방향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면 복음전파

와 교회성장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각 기관은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쏟아야 한다.

(3)유년 주일 학교

▶주일학교는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1)먼저 학년 권찰을 세워야 한다.

2)그리고 각 지역별로 권찰을 세워야 한다.

3)중, 고등학생 중에서 리더를 세우면 도움이 될 것이다.

4)어린이들도 각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을 벌여야 한다.

5)교사들에게 다락방 전도를 이해시켜라.

▶토요일 오후쯤 일대 일로 복음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면 놀랍게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The end)

6강 : 양육 (1)

1.새신자 관리

▶새신자란 한마디로 영적 갓난아이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새신자에 대한 대책이 묘연하다. 왜냐하면 새신자에 대한-

①관심이 부족하고

②방법도 모르고

③사명감도 없기 때문이다.

▶새신자를 양육하고 돕기 시작하면 그 새신자 주위에 많은 새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 전도가 중요한 만큼 양육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들을 E.B.S요원이라고 한다.

▶E.B.S(Evangelism Bible Study)

새신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이 E.B.S 요원이 교회에 많을 때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새신자들이 없게 된다.

(1)돕는 방법

1)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한다 (요1:12, 롬 10:9-10).

2)영접하여 성장하도록 기도로 도와 주어야 한다 (엡1:16, 3:14-19)

▶바울도 새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살전1:2, 3:10, 빌1:9)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새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는 기도할 힘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3)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한 그는 새로운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만나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친구와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의 주위에 있는 불신 세력을 막아주고 단절시켜 주어야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실패하면 현대 교회는 실패한다. 현대교회의 가장 맹점인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4)나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지 말며, 꼭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다.

5)기본적인 삶을 가르쳐야 한다(예 : 성경, 기도, 예배).

(2)자격없는 사람

1)부정적인 사람

2)선동적인 사람

▶E.B.S요원은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늘 성령께 의존하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신자는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3)소책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①비신자용- 사랑하는 형에게, 결단의 찰라, 회의자여 오라.

②새신자용- 새로운 삶의 길 (C.C.C.)

③성장용- 쉽게 전할수 있는 신앙개념 9단계 (C.C.C.)

4)새신자와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책도 많이 있다.

▶복음편지, 새 생명 등

5)함께 행동해야 한다. 집회, 기도회, 생일모임, 탁구등 다량한 활동에 함께 함으로 그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성경읽기와 기도하는 것을 격려하도록 만들어진 책자를 이용하라/

①성경읽기를 위한 소책자

『 명상의 시간,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비타민W 』

②기도를 위한 소책자

『 기도에 관한 소론, 기도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

③피해야 할 것을 위한 소책자 - 『 금기 』

④격려와 이해

ⓐ교회출석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 안가도 공부는 할 수 있으나 공부가 어렵듯이 교회 안나가도 구원이 있으나 사단의 공격을 늘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야 한다.

ⓑ헌금의 이유와 필요, 전도와 선교 예산 등에 대해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가족관계와 교인 전체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해야 한다.

6)새신자는 기도 짝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

①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②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다. 한 사람 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마28:18-20)

③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④서로 사랑 가운데 도울 수 있다.

⑤교역자와의 관계도 용이하다.

⑥게을러질 때에도 힘이 된다.

⑦성경읽기, 암송에도 매우 힘이 된다.

⑧소책자를 읽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개인 양육자와 기도 짝이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새신자 양육의 열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는 것이다.

행2:41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더욱 믿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E.B.S.요원만 열심히 뛰어도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 80% 이상을 건질 수가 있으므로 자연 증가되어져서 놀랍도록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러므로 새신자 양육은 놀랍도록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

▶다락방 운동과 병행시켜 가면서 E.B.S.요원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사단이 가장 악랄하게 방해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

7강 : 양육 (2)

▶E.B.S 공과 내용

군인에게 전략이 없으면 전쟁에 임할 수 없다. 백전 백패다. 개척교회이든 기존교회이든 영적전투에 임하는 자로서 전략이 서 있어야 한다. 이제 전도전략으로서 다락방 공부운동을 이야기했고 새신자 양육으로 E.B.S요원 훈련의 필요성과 이의 양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E.B.S요원이 무엇을 새신자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1.첫 번째 만남 - "성경"

(1)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3:16).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예언된 약속의 책이다(계1:3)

(2)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사40:8)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한다(벧후1:21).

(3)반드시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마5:17-18).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4)완전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신4:2, 계22:18, 19).

(5)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든든히 세운다(시119:105).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께 부탁했다(행20:32)

(6)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요, 능력이다(마4:7-9)

(7)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 있다.

1)등, 빛 (시119:05, 잠6:23)

2)거울 (약1:23-24)

3)물 (시119:9)

4)불 (렘23:29)

5)떡 (벧전2:2, 렘15:16)

6)방망이 (렘23:29)

7)칼 (히4:12) - 좌우에 날선 검.

(8)성경을 주신 목적 3 가지

1)요20:31 -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하고 생명을 얻게하기 위해서.

2)롬15:4 -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3)고전10:11 -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9)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

▶시119:19 -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즉, 믿어야 한다.

2.두 번째 만남 -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보이지 않으시나 어디에나 계신다.

(2)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창1;1)

(3)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시97:1-9). 공평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4)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시다(시139:1-12).

(5)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요일4:1-10)

(6)이 사랑을 거절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다(요3:18, 36, 요8:44)

3.세 번째 만남 - “ 죄란 무엇인가? ”

(1)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죄다. 이것이 원죄이다. 창1:27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

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이 교제와 사랑의 축복을 거절한 것이 죄이다.

(2)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창6:5-7)

(3)죄의 기원은 사단에서부터다(창2:15-17, 3:1-7).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의 죄이다. 이 불순종에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의 자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이다. 인간의 교제대상, 최고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할 神. 人간의 교제가 사단과의 교제로 바뀌어 버렸다(요8:44, 엡2:1-3).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육의 눈은 열리고 영의 눈은 감긴다. 그들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각기 제 길로 갔다(사53:6).

4.네 번째 만남 - " 죄의 결과 "(자범죄)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서 온갖 자범죄가 나타난다.

(1)막7:20-29

(2)사5:4-6

(3)사59:1-2

(4)롬6:23

5.다섯 번째 만남-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때는 좀더 진지해야 한다. 이에 앞서 죄의 기원에 대하여 복습해야 한다.

(1)죄는 어디서 왔는가? 에덴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왔다.

▶우리의 구원은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2)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결국 멸망을 갖다 준다.

(3)그러나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요일3:8).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요14:6)

▶요14:1-11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1절)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6절). 나(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7절)

▶요6:35-40 예수님께 오게되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은 하늘로서 오셨으며, 마지막날에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신다.

▶요15:19-24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같다.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6.여섯 번째 만남 - " 예수님은 어떤일을 하셨는가?"

(1)막2:1-2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

(2)막2:13-17 죄인을 부르러 오셨

다.

(3)막10:33-34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4)막10:45 대속물로 이땅에 오셨다.

(5)마21:1-10 빈 무덤이 증거가 된다.

(6)마28:1-10, 롬6:23

7.일곱 번째 만남 -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가 믿고 싶은지를 물어 보고 믿고 싶다라고 하면

(1)롬10:9-10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한다.

(3)요1:12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4)계3:20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속에 내주 하신다.

(5)롬8:2 예수의 새 생명, 성령이 우리

의 영혼속에 내주 하신다.

(6)요14:16, 26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기쁜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양육에 들어간다(본 훈련원의 E.B.S 기초훈련교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과정은 새신자들, 이제 각 태어난 자들의 E.B.S 요원들이 붙어서 훈련하고, 도우고 섬겨야 한다.

(The end)

8강 :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1.이를 위하여 우리가 숙지해야 할 전제가 있다.

(1)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잠3:5-6).

(2)하나님께 맡겨야 한다(시37:3-5).

(3)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

(4)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잠16:4).

(5)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다(시32:8).

2.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1)성경적으로 인도하신다.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다.

(2)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행8:26 구스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뜻밖이었다.

▶행10:1-23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예상외였고 이방전도의 문이 열렸다.

▶행12:1- 베드로가 투옥 되었다가 풀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행12:1-3 바울 사도가 기도 중에 엄청난 일을 벌려 놓았다.

▶행16:6-16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의외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3)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삼상 24장-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두 번째의 기회마저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다.

(4)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간의 경험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

시려고 응답을 늦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윗, 요셉, 사무엘 등을 보면 된다.

(6)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방법을 이루신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권고와 충고를 잘 들어야 한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즉 충고를 들음으로 성군이 되었다. 그 사람 말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 내어야 한다 - 때로는 시기, 질투, 책망, 비판 등의 소리를 듣고 소화해 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잠언 12:5 지혜있는 사람은 권고와 훈계를 잘 듣는 자이다.

▶잠언 19:20 권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된다.

▶왕상 12장에 르호보암 왕이 나온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다. 장로

들의 권고를 듣지 않는 그는 나라가 쪼개어지는 고통을 맞는다.

(7)판단과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 주신다.

▶시 25:9 온유한 자에게 길을 보여 주신다.

▶시25: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한 길을 보여 주신다.

▶시25:15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 주신다.

3.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1)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위험한 것이 있다.

1)음성 2)환상 3)꿈

▶이런 경우는 주남선 목사님에게 있었다.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었을 때 그분은 식사를 거부했다. 그때 진수 성찬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먹고는 출옥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디었다는 간증이 있다. 이렇듯이 급

박한 상황에는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다.

(2)매일 매일의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인도하신다(행2:42)

▶그러므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3)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고(부모, 자식 등)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우리 주위의 환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4)애매한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결혼, 직장 등)

▶이때는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조건, 다락방하기 제일 좋은 조건

(5)존재 판단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6)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

▶주의할 것이 있다. 만약 결정할 때는 확고한 증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행6:2-5 집사를 뽑을 때 기도하고 투표를 했고, 특히 훈련된 사람 중에 뽑았다.

▶행16:3-8

▶행20:3-16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육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충분히 연구하고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7)시험, 환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험,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 하신다.

(8)성경, 교회사,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9)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세히 연구하고 대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 시대의 흐름을 앞질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지혜롭다.

4.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법

(1)기쁨이 온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나가시므로 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밝히신다. H.G 스펫포드가 470장 찬송을 지었다.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이 오히려 찬송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2)어느 것이 우리의 목표와 가까운가?

(3)어느 것이 우리의 달란트에 가까운가? (The end)